

# 범주와 문헌분류표의 주류와의 상관성 연구

## A Relation Study on Category and Main class of Classification System

조윤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남태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Cho Yun-Jung ,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Nam Tae-Woo,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본 연구는 범주와 현대의 주요 문헌분류표의 주류선정에 있어서의 상관성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주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보고 철학적 관점, 논리학적 관점,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범주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논하였다. 다음으로 문헌분류의 주류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범주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상관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1 서 론

분류에서는 물론, 철학, 언어학, 생물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영역에서도 범주화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 개념과 범주, 이들의 구조와 조직이 지식의 구조화에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범주화는 인간활동의 근본으로서 다양성 속에서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간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 범주화란 인간이 현상세계를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어 파악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한 언어권이 지니고 있는 단어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처럼 제한된 언어를 통해 무한한 외부 세계를 무리 없

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물을 범주화하는 능력을 인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주화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은 추상적인 속성으로 표현되는데 이 속성은 개별화된 전체로 연결되어 있으며 추상적인 속성의 총합의 개별화가 실제 사물이다. 이러한 존재개념으로부터 유개념(*genera*), 종개념(*species*), 하위개념(*sub-species*)이라는 상호배타적인 분류학으로 발전되었다. 이로부터 과학이 출발하였는데 특정 현상을 관찰하고 귀납적 일반화에 기초하여 사물의 속성과 기능에 따라 포괄적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자연 현상을 실증

적으로 관찰한 자연법칙에 따라 분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고 간결하며 단순하게 실체를 구분하고 속성을 연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에서는 사물간의 연관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본질적인 사물은 어떤 다른 본질적 사물을 지시하지 않고는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다. 즉, 현실 세계의 사물은 단절된 실체로 분절될 수 없으며 비록 개개의 실체가 그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본질적인 개체로서 공유하는 핵(nucleus)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sup>1)</sup>

문헌정보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분류라는 용어는 지식의 구조단위인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 범주화를 통해 특정 영역의 지식을 일정한 체계로 구조화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문헌분류는 범주라는 개념과 많은 관련이 있다. 현대에 수많은 지식 문헌분류에 있어서 이와 같이 분류는 지식의 구조단위인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와 범주화를 통해서 일정한 체계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의 의미는 범주화하는 데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주가 문헌분류표의 주류선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범주와 주류와는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비교조사를 사용

하였다. 문헌은 DDC, CC, LC, KDC와 그와 관련된 문헌을 사용하여 각각의 문헌분류표의 주류선정을 비교 분석해보고 범주와의 상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범주의 유래 및 정의<sup>2)</sup>

범주는 그리스어의 카테고리아(kategoria)에서 유래한다. 철학상의 의미는 실재와 그 발전, 변화의 가장 일반적인·본질적인 제 규정을 반영한 개념을 말하며 이것은 인식에 있어서의 결절점(結節點)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과학에서도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그 대상이 지닌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제 규정을 가리키는 각 과학에 있어서의 범주가 있다. 철학에서 범주에 대한 생각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도의 바이세시카 파(육파철학 六波哲學)의 실체·성질·작용 등의 개념에 나타나 있으며, 또한 그리스의 이오니아 학파가 냉·온·습·건·지(地)·수(水)·화(火)·기(氣) 등을 존재의 기본개념이라고 한 것, 피타고라스의 설, 나아가 플라톤이 최고의 유(類)개념으로 유(有)·동(同)·이(異)·변(變)을 들고 있는 것에서도 범주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명확한 범주론을 세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그는 실체·양·관계·장소·때·능동·수동·상

1) 김태수,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2) 철학사전, 중원문화, 1991, p.265

태·소유 형태의 10개를 '존재의 범주'라고 지칭했다. 그후 데카르트나 로크는 실체·상태·관계 3개를 들고 있으며, 칸트는 종래 논리학의 판단 형식에서 빌어와 12가지로 범주를 나누었다. 나아가 헤겔은 제 범주를 체계적으로 관련 지워 그것들 사이에는 발전 과정이 있는 관계로 보았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주요한 범주로서 물질·운동·시간·공간·질·양·모순·인과관계·필연성과 우연성·형식과 내용·가능성과 현실성 등을 내세운다. 이것들 모두는 객관적 실재에 있는 제 규정을 의식에 반영시킴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을 갖고 있으며, 또 한 의식의 발전과 함께 실재 안에 숨어 있던 범주가 명확하게 드러나 범주 자체도 발전하고 풍부해진다.

## 2.2 철학에서의 범주의 기능 및 유형

범주는 주고 고소(告訴) 또는 고소의 내용을 뜻하는 회랍어의 카테고리를 소리 그대로 복사한 카테고리(category)의 번역어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전문용어로 채택하여 술어의 뜻으로 사용한 이래 철학의 주요 개념으로 다루어 졌다.<sup>3)</sup>

명확한 범주론을 세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범주는 최고의 유개념으로서 존재의 최고류를 실체(substance), 량

(quantity), 질(quality), 관계(relation), 장소(place), 시간(time), 작용(operation), 상태(state), 능동(action), 피동(passion)의 열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기본범주는 실체로서 기타 범주는 모두 이 실체범주를 전제로 한다. 마치 대상이 없으면 크기나 색깔을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사물의 본질적 속성과 비본질적 속성을 구별한다. 본질적 속성은 어떤 사물을 현재 상태의 사물로 규정하는 요소이다. 이 속성은 사물들의 개별성을 규정하고 나타내고 그 사물 속에 내재하는 모든 요소인데 그 요소들의 파괴는 전체의 파괴를 의미한다. 비본질적 속성은 우연한 속성으로서 어떤 사물의 현재 상태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즉, 비본질적 속성은 어떤 사물을 사실대로 서술하지만 필연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sup>4)</sup>

## 2.3 논리학에서의 범주의 기능 및 유형<sup>5)</sup>

칸트는 종래 논리학의 판단 형식에서 범주를 12가지로 나누었다. 이 범주들은 감성의 소여를 사고에 의해 인식에까지 다르게 하는 사고의 선천적 형식이라고 했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칙없이 10개의 범주를 주워 모았다고 비판하면서 자신

3) 민병위, "과학적 탐구의 전제로서 '범주론'에 대한 연구", 경남대인문논총, 1991. 12.

4) 김태수,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5) 민병위, "과학적 탐구의 전제로서 '범주론'에 대한 연구", 경남대인문논총, 1991. 12.

의 오랜 동안의 사색 후에 감성의 순수개념(공간, 시간)을 오성의 순수개념에서 분리하는 것에 성공함으로써 범주표를 완성했다. 그는 오성을 완전히 측정하여 오성의 모든 기능을 모두 규정할 수 있는 원리를 찾기 위해 바로 주어와 술어가 연결되는 방식을 조사함으로써 곧 인간의 인식을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질서의 구조를 명료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착상을 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이 갖추고 있는 개념들을 칸트는 범주라고 불렀다. 그는 이런 범주가 각각의 판단형식에 짝이 맞게 모두 12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범주표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데 대한 선천적 보증을 얻으려 했고 이를 위해 '형이상학적 연역'에 의지했다. 형이상학적 연역에서 칸트는 형식논리학상의 다양한 종류의 판단으로부터 범주를 이끌어 내려 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오성은 개념에 의한 인식능력이다.
- (2) 개념에 의한 인식은 판단하는 작용이다.
- (3) 판단작용은 표상들 간의 통일기능이다.
- (4) 각종의 통일작용은 일반논리학의 '판단의 형식들'이다.
- (5) 판단의 형식들은 일반논리학의 '판단표'에 나와 있고 이것은 오성이 표상들을 결합하는 각종의 방식이다.

즉 판단표는 결국 "오성의 기능표"요 오성의 기능표가 바로 '범주표'다. 이렇게 해

서 나온 판단형식과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1〉 칸트의 범주체계

주어-서술어관계	범주	판단형식
분량(Quantitat)	단일성	전칭판단
	다수성	특칭판단
	전체성	단칭판단
성질(Qualitat)	실재성	긍정판단
	부정성	부정판단
	제한성	무한판단
관계(Relation)	실체성	정언판단
	인과성	가언판단
	상호성	선언판단
양상(Modalitat)	가능성	개언판단
	현존성	실연판단
	필연성	필연판단

#### 2.4 문헌정보학에서의 범주의 기능 및 유형

문헌정보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분류라는 용어는 지식의 구조단위인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 범주화를 통해 특정 영역의 지식을 일정한 체계로 구조화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분류에서 "범주"라는 용어는 여러 학자들이 사용해왔지만,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였다. 윌드학(Wildhack)은 범주를 관점과 같은 용어로 보았고, 포스켓(D.J. Foskett)은 "패싯(facet)"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간주하였다.<sup>6)</sup>

랑가나단(S.R. Ranganathan)은 기본범주가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 개성과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의 기본원리는 이 기본

6) 김학용, "CC와 UDC에서의 건축학 분야의 패싯순서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범주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랑가나단은 이 다섯가지 기본범주가 모든 지식분야에서 적용한다고 보고, '어떤 구체적인 지식분야는 다섯가지 기본범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범주는 직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학적 정당성은 없다. 이 기본범주는 편리하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 (1) 시간(Time)

이것은 한 주제에서 시대적, 연대적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세기 시', '중세학', '현대 문화'에서 '20세기', '중세', '현대'와 같은 것이다. 이들 주제는 시간적 요소를 갖고 있다. 또한 태양력, 음력, 지질학적 시간, 주야, 계절, 사회적, 기상학적 시간도 표현 할 수 있다.

#### (2) 공간(Space)

공간 범주는 지리적 지역 또는 인구집단을 표현하는 범주이다. 자연지리, 방향 행정단위와 같은 영토구분 및 개념상의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구릉지역, 계곡, 사막, 해안지역 또한 여기에 속한다.

#### (3) 에너지(Energy)

기본범주 에너지의 식별은 공간 또는 시간 범주보다 약간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

범주는 행위의 유형을 표시한다. 그 행위는 모든 종류의 실체(무생물, 생물, 개념, 지적, 직관적), 그리고 모든 종류의 실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행위는 정신적 혹은 물질적은 것일 수 있다.

#### (4) 물질(Matter)

기본범주 물질은 에너지 범주보다 더 식별이 어렵다. 이 범주는 재료와 속성으로 나뉜다. 물질 범주가 지닌 폭넓고 다양한 내용에서 볼 때,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나, 물질은 물체의 특성 및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물질은 방법, 특성, 재료를 중요시한다.

#### (5) 개성(Personality)

모든 기본범주 중에서 개성은 가장 구체적이지만 인식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인간의 특성처럼 이것은 복잡한 실체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 개성은 주제의 핵심 및 본질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없다면, 주제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콜론분류법에서 이 범주가 없으면 주류(main class)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성에 대한 공식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쿠마(Krishan Kumar)는 "개성은 사물 그 자체를 표시한다"고 보았다. 개성은 모든 다른 기본범주의 기반, 소재지를 형성한다. 이것이 개성이 없다면 공간과 시간에서

7)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1981.

기관, 구성요소, 속성, 반응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다.<sup>8)</sup>

### 3 범주와 주류의 상관성 분석

#### 3.1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sup>9)</sup>

DDC는 1876년 Melvil Dewey가 초판을 발표한 이래 현재 21까지 간행되었다. 구조 체계로 보면 열거형 분류법이지만 일정한 특성범주를 주제와 합성하는 기법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DDC는 해리스의 분류표를 그대로 적용시켜 DDC를 개발하였는데, 이 해리스 분류표는 또 베이컨의 학문분류법에서 영향을 받았고, 베이컨의 분류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분류체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DDC는 해리스의 분류표를 그대로 적용시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베이컨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DDC에서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일차적으로 학문영역이나 연구분야로 범주화하고 있다. 즉, 주제(subject)가 아니라 학문영역(discipline)에 따른 지식구조를 주된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분류기호는 표현되지 않는다.

주류는 지식의 전 분야를 1차 구분하여

아홉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포괄적인 영역을 0으로 배정하여 열 개의 영역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1차 하위개념을 주류(main classes)라고 하고 이들 주류가 전체 지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표-2〉 DDC의 주류

000	Generalities
100	Philosophy & psychology
200	Religion
300	Social sciences
400	Language
500	Natural sciences & mathematics
600	Technology (Applied sciences)
700	The arts, Fine and decorative arts
800	Literature & rhetoric
900	Geography & history

#### 3.2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한국십진분류법(KDC)은 1996년 8월에 제4판까지 발간되었다. 제4판은 DDC 20판과 일본십진분류(NDC) 9판 등을 참고하여 개정되었다.

KDC의 본표는 DDC의 구성체계를 답습하여 십진식으로 도입하였고, 상하주제 또는 개념이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의 배정은 DDC의 최대 약점으로 간주되는 언어와 문학의 유리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자를 인접시켰다.<sup>10)</sup>

8) Krishan Kumar, 앞책.

9) 김태수,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표-3〉 KDC의 주류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순수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 3.3 LCC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sup>11)</sup>

이 분류표는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열거식 분류표로서 전개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50만 권 이상의 대도서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LCC는 제퍼슨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류는 전개분류법(EC) 배열체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문분류에 따른 분류표로서 모든 지식분야가 주요 학문에 대응하는 주제로 A~Z까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학문을 삽입하거나 분류표의 전개여지를 위하여 다섯 개의 알파벳 대문자, I, O, W, X, Y를 공기로 남겨 두었다.

LCC에서 사용한 제퍼슨 분류표의 개요도 베이컨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는데, 앞에

DDC에서도 언급했듯이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기에 베이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은 LCC의 분류체계에 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표-4〉 LCC의 주류

A	General, Polygraphy
B	Philosophy and Religion
C	History: Auxiliary sciences
D	History: General and Old World
E-F	History: America
G	Geography; Anthropology; Folklore
H	Social Science
I	
J	Political Science
K	Law
L	Education(general)
M	Music
N	Fine Arts
O	
P	Languages and Literature
Q	Science
R	Medicine
S	Agriculture
T	Technology
U	Military Science
V	Naval Science
W	
X	
Y	
Z	Bibliography, Library Science

10) 윤희운, "정보자료분류론", 서울:태일사, 1998.

11) 윤희운, 위책과 동일

### 3.4 CC(Colon Classification)<sup>12)</sup>

이 분류법은 인도의 랑가나단이 창안한 분류법으로 분석합성식의 대표적인 분류법이다. 분류대상물의 다면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다면적으로 분석된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각 도서들이 가진 복합주제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한 분류표이다.

CC는 초판의 경우 주류가 27개류였으나 제 6판의 경우는 47개, 제7판에 이르러서는 82개류로 증가하였다.

주류의 구성은 총류, 주제의 영역, 도서관학, 도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경영, 수학, 천체물리학, 물리학, 공학, 생물학, 지질학, 식물학, 농학, 임학, 동물학, 가축, 의학, 예술, 신비주의, 미술, 문학, 언어학, 종교학, 철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교육학, 교육심리학, 지리학, 역사, 정치과학, 경제학, 산업경제학, 사회학, 법학으로 이루어졌다.

CC는 주제의 배열이 암페르의 주제배열과 동일한 순서로 이루어져 암페르의 학문분류가 CC의 문헌분류에 영향을 미쳤다.

### 3.5 상관성 분석

각 문헌분류표 별로 언급했듯이, 현대의 대부분의 주요 분류표는 학문분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베이컨의 학문분류체계이다. KDC는 DDC와 NDC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시켰고, DDC는

해리스 분류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해리스는 베이컨의 분류에서 영향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베이컨의 영향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 그리고 LCC의 제퍼슨 분류법도 베이컨의 분류체계에 영향을 받아 탄생된 분류법이다. 따라서 현대의 대부분의 문헌분류는 베이컨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서양에서 최초로 시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분류는 베이컨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학문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쿠마도 그리스시대이후 약 2천년동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도한 학문분류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합리적 학문분류시스템의 고안을 시도하였고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베이컨의 학문분류는 물론 근대 자료분류표의 근원적 바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분류에서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13)</sup>

## 4 결 론

지금까지 범주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보고 철학적 관점, 논리학적 관점,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범주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 문헌분류표의 탄생배경과 주류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았다.

문헌분류는 범주라는 개념과 많은 관련

12) 정연경, "학문분류, 문헌분류, 연구분류에 관한 비교 분석", 이화여대사회과학연구논총, 1999. 12.

13) 이천효,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분류 분석", 국회도서관보 27권 4호, 1990.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 수많은 지식 문헌분류에 있어서 이와 같이 분류는 지식의 구조단위인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와 범주화를 통해서 일정한 체계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의 의미는 범주화하는데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문헌분류는 여러 관점에서 범주의 유형과 의미에서 상관성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태수.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 김학용. "CC와 UDC에서의 건축학 분야의 패시순서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민병위. "과학적 탐구의 전제로서 '범주론'에 대한 연구", 경남대인문논총. 1991. 12.
- 윤희윤. "정보자료분류론", 서울: 태일사, 1998.
- 이천효.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분류 분석", 국회도서관보 27권 4호, 1990.
- 정연경. "학문분류, 문헌분류, 연구분류에 관한 비교 분석", 이화여대사회과학연구논총, 1992.
- 중원문화.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1991.
-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1981.
- S. R. Ranganathan, "Prolegoment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1967.